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9월 12일(금)

..(음력 7월 21일)...

Пятница

12 сентября 2025 г.

№ 35 (1215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아름답게 변모되어 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143주년을 맞이한다. 올해 도시의 날 기념행사는 9월 13일 가가린 공원, 로가트카 강변, <러시아는 나의 역사>박물관 행사장 등에서 펼쳐진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제5회 사할린 법률 포럼, 미래의 디지털과 국제적 과제 논의

9월 9일 - 1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5회 극동 법률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포럼의 주요 주제는 <기술혁명: 국제적 및 법률적 과제>이다. 이 행사에 법조계, 경제계, 정치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기업 대표들이 모여 사할린과 극동지역에서 사업과 경제개발 및 디지털 전환과 국제법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 포럼 개막식에서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환영사를 전하며, 이제 포럼은 전통적으로 전문가들 간 대화의 장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지방자치행정과 세계 개혁의 첫 성과, 디지털경제, 산업의 현대화, 비현금 채무 징수, 소송 비용 절감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사할린주 정부와 '텍스트프로프' 법률회사와 지역 상공회가 주최했다.

태평양 함대 함정, 코르사코브 항 입항

태평양 함대 함정들이 '진실의 힘-2025' 행사 일환으로 코르사코브 항에 9월 13일(토) 입항한다. 함대에는 코르벳함 '소웨어센니', 대잠순양함 '아드미랄 판텔레예브', 대형 상륙함 '오슬라바', 현대식 기뢰제거함 '아나톨리 슐레모브', 구조선 '알라타우'가 포함됐다. 제2차 세계대전 80주년 종전을 기념하여 포병 사격과 군 장비 전시, 애국 음악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코르사코브 입항하기 전 함대는 파라우쉬르, 이투루프, 쿠나쉬르 섬들의 항구에 입항하여 '진실의 힘' 행사를 진행하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 과학자 대회 개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5회 청년과학자 포럼' 행사가 열린다. 전국 각지의 과학자들이 사할린의 해양 광물 자원 채굴, 원격 지역 에너지 안보, 연어 개체 수 복원 등 지역적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사할린주는 러시아 최초의 탄소 중립 달성, 수소 매립지 구축, 무인기 기술 선도 등 첨단 기술 실험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네벨스크·세웨로쿠릴스크, 재해 복구 작업 마무리

8월 말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네벨스크 지역과 7월 지진·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세웨로쿠릴스크의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네벨스크에서는 피해 주민 대부분에게 재정 지원 및 건축 자재가 제공됐다. 세웨로쿠릴스크에서는 난방 시기를 대비한 주택 수리 작업이 한창이다. 주 정부는 피해 주민, 특히 노년층의 이주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두 재해 모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해 복구작업 문제가 사할린주정부 회의에서 심의됐다.

존경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향인 여러분!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 설립 143주년을 맞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출발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이제 극동 지역의 주요 경제·문화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 아늑한 공공 공간, 현대적인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특별한 친절과 환대의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도시를 위해 노력해 온 여러 세대 주민들과

오늘날 이 도시의 번영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공로입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낙관적인 마음, 새로운 성공, 그리고 가정의 안녕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항상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생일을 축하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에 드론 조종학교 설립

사할린주는 학교 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무인항공기 시스템 분야의 인재 양성체계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고 사할린주 교육부가 전했다.

<사할린의 날개> 국제 무인항공기포럼의 일환으로 <사할린 엑스포> 테크노파크에서 무인기 조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전략적 회의 및 교육일정이 진행되었다.

교육에 주정부 대표들을 비롯해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교육일정에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장관이 진행을 맡았다.

2030년까지 러시아에서 무인항공기 분야의 전문가 1백만 명을 양성할 계획인 가운데 사할린주에서는 이미 인재양성을 위한 전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사할린의 날개> 기획의 일환으로 2학년부부터 11학년부까지 학생들 대상 무인항공기 조정 및 프로그래밍과 조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정보통신과 기술 과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방식은 어린 연령부터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져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을 위해 <날아올라라!> 축제와 수업을 진행하여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할린 산업경제기술전문학교에서 '무인항공기 시스템 조정' 학과를 개설한 가운데 25명 모집에 이미 53개의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사할린 국립대학에서는 새 학기부터 대학생 설계국이 운영되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사회안전생활 교육-조직' 학과가 개설되었고, 이 학과에서는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들을 우대 모집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5개 요식업체 국제 요리상에 도전

사할린의 요식업체들이 극동지역 우수 레스토랑 수상 부문에서 <2025 웨일 투이트 파 이스트(극동의 먹을 만한 곳)>부문의 상위 후보에 올랐다.

이 부문에서 총 50개 요식업체들이 선정되었고, 그중 유즈노사할린스크의 5개 요식업체가 순위에 오른 가운데 '601'를 비롯해 '클료워', '리바 모예이 메츠티(내 꿈의 생선)', '니혼 미타이', '사갈리엔'이 포함됐다. 9월의 상위 순위와 전체 순

위는 10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전통적으로 9월에 각 지역에서 상을 시상한다.

9월 18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극동연방관구에서 우승한 요식업체들이 발표된다. 권위 있는 이 부문의 상은 2013년 러시아 미식기자협회가 제정했으며, 향후 지역 주민들과 러시아 각 도시의 방문객들에게 상을 받은 명품 맛집이 소개된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동방경제포럼 결과, сахалин주 남부 지역 주민 6만 명에 안정적 전력 공급

대규모 동방경제포럼 국제행사에 сахалин 지역 대표단의 참가 결과가 주정부 회의에서 보고된 가운데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 전압110kv 송전 변전소 '유즈나야'가 개선되면서 сахалин 남부 지역 주민 6만 명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이 동방경제포럼 중에 이뤄졌다.

제 10회 동방경제포럼이 9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려 сахалин과 쿠릴열도의 수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될 몇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 110kv송전 변전소가 개선되어 가동되고 있다. 사실 '루스기드로' 회사의 자금 지원으로 현대적인 디지털 장비로 새로이 시설을 갖춘 새 변전소가 건설되었다. 이 변전소는 60년간 가동되던 시설을 개선해 교체했다. 그 결과 6만 명의 주민들에게 향상된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 코르사코브, 아니와, 네웰스크를 비롯해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간단히 말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소비전력을 위해 여분의 예비전력이 만들어진 점이다.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주택과 공장을 건설하며,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와일드베리스' 회사 창립자 타티야나 김과도 회담을 가진 가운데 기업 경영진은 сахалин과 지역에 물류센터에 대한 계획을 확정했다.

부지가 확정되어 부지에 기계설비의 제반 시설 구축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와일드베리스' 인터넷 쇼핑몰은 сахалин 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높다.

сахалин 지역에 '와일드베리스' 배급처가 134곳에 달하면서 물류센터 건설로 배송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сахалин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관심의 중심에 몇 차례 언급됐다.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의 일부 지역들에서 빈곤율이 러시아 평균수치보다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сахалин주의 빈곤율은 5.3%로 우수했는

데 이러한 수치는 지역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сахалин주 전 지방자치체에서는 사회적 상점이 운영되고 있고, 기초 식품의 시장가격도 평균 시장가격보다 낮은 편이다. '빈곤과의 투쟁' 기획 덕에 지난해에는 3,000가구 이상의 소득이 증가했고, 2,000명 이상이 자질을 향상시켜 새로이 취업했으며, 1,500가구가 주거여건 개선에 지원을 받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극동의 연료-에너지단지 개발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가스프롬' 기업의 알렉세이 밀레르 최고 경영자의 말에 따르면 сахалин주는 사회적 가스화 분야에서 선두주자라고 언급했다. сахалин주에서는 2021년부터 친환경 연료를 6,835가구에 연결시켰는데 몇 년 전만 해도 сахалин 지역의 가스화 수준은 14%에 불과했었다. 현재 가스화 현황은 64%를 넘어서 연기 나는 굴뚝의 석탄보일러는 현대적인 에너지원으로 교체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가 절감되었고, 도시와 마을의 공기가 더욱 깨끗해졌다.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сахалин주 대륙봉에 있는 유즈노-키린스크에 가스 응축수 유전을 이용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 유전은 'сахалин-3' 기획에 속하여 극동지역 전체 천연가스 주요 공급원이 될 수 있으며, 유전개발로 сахалин 석유가스단지 개발과 관련 산업을 비롯해 새로운 세수입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방경제포럼 행사장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스페르반코 경영진과 만남이 조성돼 스페르반코와 сахалин주 정부는 공동으로 일련의 중요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 프로그램, 'сахалин테크' 캠퍼스 대학생의 도시 건설, '21학교' 디지털 기술학교 설립, 인공지능센터 건립이다.

가장 최근에 시작된 기획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에 몇 개의 스포츠 경기장 건설이고, 양측은 사회적 제반시설 발전에 은행의 역할 유지를 염두에 두면서 향후 협력 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남인도 국제 당수도 총재, сахалин에서 특별 마스터클래스 진행

сахалин과 인연이 깊은 남인도 국제당수도연맹 총재가 이번 сахалин 방문 일정 중 지역 무술인들을 위한 특별 마스터 클래스 및 심사 자격증 취득 행사를 가졌다.

지난 9월 10일(일)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무술 센터 "오스트로브(섬)"에서 열린 행사에서 남 총재는 직접 합동 수련을 지도하며, 젊은 세대의 제자들에게 그만의 기술비법과 특별한 훈련법, 실전 기술의 정수를 전수했다. 그는 특히 무예의 정신적·철학적 측면에 주목하며, "무술은 단순한 싸움의 기술이 아닌, 인간 내면의 수양과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포괄적인 수련 접근법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сахалин 무술인들을 위한 국제 공인자격증 시험이었다. 참가 선수들은 화려한 품새와 격투 시범을 통해 시간 같고 닦은 뛰어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엄정한 테스트를 마친 뒤, 남인도 총재가 직접 수훈자들에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격증과 상징적인 검은 띠를 수여하는 영예를 안겼다.

아울러, 행사 일환으로 한국 전통 무술의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сахалин주 스포츠 및 사회단체 지도자들에게 감사장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сахалин 무술의 미래를 정하는 협약식도 있었다.

(3면에 계속)

'сахалин의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 일환으로 일상에서 행복순간을 즐기는 김 예브게니

지난 9월 9일(화) 새고려신문사가 주최한 'сахалин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의 일환으로 창의력이 풍부한 김 예브게니(30세)와 간단담화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 가가린호텔 대회의실에서 소집되었다.

'сахалин스카야 에네르기야' 석유가스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는 김 예브게니는 다양한 취미를 전문성 높은 실력으로 즐긴다.

그의 마지막 작업 중 하나는 지난 주말에 '푸쉬스틱' 무인항공기 공항에서 개최된 'сахалин의 날개' 비행·음악·스포츠 축제에서 сахалин 필하모닉 위해 록그룹 공연 사진촬영이었다. 그는 그만큼 사진작가로 인정받았다. 예브게니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술: 행복, 창조,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란 주제를 삼아 이날 이야기를 이었다. 그는 행



실력이 좋다. 짧은 비디오영상도 제작하기도 하고 엽서 만드는 것도 즐긴다. 시는 주로 영어로 쓰고, 음악도 쓴다, 웹사이트 만드는 재능도 있다. 일상, 창작, 그리고 삶의 소중한 순간, 기쁘고 행복한 순간, 따뜻한 가족 이야기 등 이날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다.

올해 5월에 커버 밴드에서 만난 운명 - 다리나와 결혼한 그는 이날 함께 그가 작사·작곡한 '꿈 꾀' 노래를 불러 관객들의 마음을 녹였다. 이들은 이날 노래 선물 외에 예브게니가 손수 만든 우편엽서도 받고 가장 재미있는 질문을 한3분은 새로 디자인 된 유일 엽서도 받게 되었다.

참가자 모두는 이날 대화 분위기가 따뜻하고 흥미로웠다고 한다.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복의 순간을 일상에서 자주 느낀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창작에서 느끼는 보람과 행복의 순간도 말하였다. 가족 제품을 손수 제작하는 것이 이미 수년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펠트 모자(펠트 햇)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작업장도 만들고 클래식 기타도 자습으로 배우고 커버 밴드에서 연주할 만큼

이모저모

제11회 <сахалин의 날개> 축제, '푸쉬스틱' 무인항공기 공항에서 열려 수천 명 운집

매년 열리는 <сахалин의 날개> 연례 행사의 첫 이틀간은 화려한 에어쇼, 무인항공기 시연, 다양한 음악 공연, 그리고 다채로운 스포츠-오락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9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행사에서 방문객들은 하늘에서 항공의 힘과 지상에서 활동의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주최 측은 기술과 창의성의 결합에 중점을 두고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축제 <сахалин의 날개>는 다시 한 번 극동지역에서 가장 흥미롭고, 기대되는 행사 중 하나가 되었다. 올해 이 축제는 무인항공기 국제 포럼 개최와 더불어 сахалин 지역이 기술적인 추세를 따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문객들은 이미 하늘에서 무인항공기의 교향곡인 드론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지상에서는 기술, 창의성, 그리고 음악의 조화가 펼쳐졌다.

모든 방문객들이 찬란한 감성을 느꼈을 거라 본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전했다.

축제의 첫 이틀 동안 관객들은 음악그룹들 F.P.G, '파일릿', '라디오 타록(Radio Tapok)', '바흐트-콤포트', '코스짜 콜라소브'와 밴드 '아니마짜야', '고르세네브' 등 여러 예술단의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이 축제는 역사상 가장 음악적인 행사였다! 급속히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그룹부터 전성기를 누리는 밴드까지 러시아 각지에서 온 10 개 이상의 다양한 유명 밴드가 참여했다.

축제는 항공, 스포츠, 기술, 음악이 결합된 것이 독특한 특징이었다. 러시아 내의 다른 어떤 축제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못한다."라고 축제 참시자이자 스포츠 기술감독 스포츠학교의 드미트리 트레티야코브 교장이 말했다.

축제는 9월 7일까지 계속되어 방문객들은 디지털 체험 공간, 스포츠 경기, 그리고 다채로운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더 하터스(The Hatters)' 러시아의 대표적 유명 밴드가 마무리를 장식했다.

XI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собрали десятки тысяч гостей на дроне порте Пушистый

Первые два дня ежегодн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события порадовали зрителей зрелищным авиашоу, выступлениями беспилотной техники, артистов и насыщенной спортив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программой.

Гости смогли оценить мощь авиации в небе и разнообразие активностей на земле. Организаторы сделали акцент на синтезе технологий и творчества, подготовив уник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Другие коллективы.

— Фестиваль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вновь ста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ярких и ожидаемых событ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этом году он проходит параллельно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форумом беспилотных аппаратов всех сред, который демонстрирует,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е только следит з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и трендами, но и сама задает их. Гости уже увидели в небе парад дронов - симфонию пилотируемой и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А на земле происходит синтез технологий, твор-

чества и музыки. Желаю всем гостям ярких эмоций!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первые два дня фестиваля зрителей порадовали группы F.P.G, «Пилот», Radio Tapok, «Бахыт-Компот», Костя Кулясов и группа «Анимация», «Горшенев» и Этот фестиваль - самый музыкальный за всю историю! У нас свыше 10 хедлайнеров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от групп, стремительно набирающих популярность, до коллективов на пике славы. Уникальность - в сочетании авиации, спорта, технологий и музыки. Ни один другой фестиваль в стране не объединяет столько направлений, - рассказал основатель фестиваля, руководитель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по техническ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Дмитрий Третьяков.

Фестиваль продолжился 7 сентября. Гости ждал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и насыщенн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Главным хедлайнером финального дня станла культовая российская группа The Hatters.

сахалин의 요식업체들, 임산부 및 수유부를 위한 메뉴 준비

сахалин에서 <행복한 모성> 기획이 지속되는 가운데 сахалин에 있는 9개 요식업체가 임산부 및 수유부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메뉴를 선보인다. 이 메뉴에는 임산부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알레리 리마렌코 сахалин주 주지사가 주도한 이 기획은 예비 엄마들의 편의를 돕고, 의료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며, 사회적 지원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씨름 선수들, 키르기즈스탄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 3개 획득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 까지 키르기즈스탄 의숙쿨 호숫가에서 독립국가연합(CIS)와 상하이 협력 기구(SCO) 회원국들 간 제24회 국제 스포츠 경기가 개최됐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규모의 스포츠 행사로서 이번 경기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중국, 인도, 몽골 등 국가에서 3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경기 종목으로는 수영, 육상, 배구 등 같은 전통 스포츠 종목은 물론, '씨름'을 포함한 다양한 전통 레슬링 종목도 포함됐다.



초청으로 씨름 종목에 참가해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메달을 획득한 사할린 선수들은 다음과 같다: 키릴 춘 (2008년생, 금메달 2개), 알리사 춘 (2014년생, 금메달 1개), 아르쭘 춘 (2014년생, 은메달 1개), 올가 윤 (동메달 1개).

키르기즈스탄 경기가 끝난 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할린 씨름팀은 중국 연길 시에서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국제 씨름 선수권 대회로 출전 차 바로 떠났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씨름협회 제공)

사할린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 팀은 키르기즈스탄 씨름 연맹 및 경기 조직위원회의

살아있는 기억 공간 - 러시아·한국·중국 공동 연구팀의 시점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원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교수, 동지양 연구원, 그리고 한국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이준영 연구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 9월 2일부터 8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마카로브, 우글레고르스크 등 사할린 각지를 찾아 지역의 문화 역사 유산을 조사했다.

이번 사할린 현지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연구팀은 첫 조사 성과를 한국과 일본에서 사진전으로 공개했으며, 이번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카로브항도박물관에서 전시를 열게 되었다. 전시는 10월무렵까지 이어지며, 방문객은 사할린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적 공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만난 지역 인사들로부터 역사적 공간에 얽힌 기억 구술을 청취하여 사할린의 역사가 단순히 '사라져가는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임을 느꼈다고 전하며 아래와 같이 소감을 밝혔다.

사할린 한인 이주사를 연구해온 이준영 조교수는 "사할린의 역사적 유구와 시설들은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공간적 이미지에 각인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운남 지역의 변경사를 연구해온 동지양 연구원은 본지에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다. "저는 이 러시아 극동의 섬에 사할린 연구자가 아닌 관광객도 아닌 그 중간 입장에서 방문했습니다. 이 7일간 일정에서 우리 연구팀



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마카로브, 우글레고르스크, 코르사코브를 돌아보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중국 남서부 국경지대인 운남성을 연구하며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전부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 변경이란 고립된 세계에서 동떨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화가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사할린이야말로 그런 곳입니다. 9월의 사할린은 버섯의 계절입니다. 같은 시기에 제 고향인 운남성의 산속에 버섯들이 자라납니다. 버섯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버섯과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파이차제 교수는 "사할린 역사를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이라는 나라를 잇는 초국경 프로세스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 인문적 시선을 구축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두 차례에 걸친 현지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논문과 사진집 형태로 출판하고, 사할린 지역과 역사, 독자의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본사 기자)

남인도 국제 당수도 총재, 사할린에서 특별 마스터클래스 진행

(2면의 계속)

이날 국제당수도 연맹은 사할린의 합기도 연맹, 사할린 국제태권도연맹, 사할린 글로벌태권도 연맹, 사할린 킥복싱 및 무에타이 연맹, '오스트로브'무술협회와도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국제당수도연맹은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와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민족 사회와의 협력도 다졌다. 이번 협정을 통해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 대규모 국제 대회 개최 및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남인도 총재는 "저는 10년 전에 사할린 동포의 한을 생각하며, 민족정신을 담은 당수도를 보급하고자 처음 사할린을 방문하여 그동안 당수도 세미나 및 경기를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유단자와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여러 단체와 협력 협약서



를 체결하고, 한국 기관과 여러 국제단체가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할린의 안수학 회장, 부포린 회장, 천영근 회장 등에게 감사를 드리며, 국제당수도 연맹 세계총재로서 사할린 발전과 당수도인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남인도 총재의 방문은 단순한 친선 차원을 넘어, 동양 무술의 깊은 전통과 사할린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취재: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유즈노사할린스크, <가족적 도시의 날> 기념

9월 13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형성 143주년 기념행사가 열려 <가족적인>이란 통합된 표어 아래 온 가족을 위한 풍성한 축제 프로그램이 주민들과 시 방문객들을 기다린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이 전했다.

축하행사는 주요 행사 전날인 9월 12일에 시작되며, 이날 시공원의 유리로 장식된 행사장에서 11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행정부상 표창과 시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거행된다. 12시부터 19시까지 시공원 '연인들의 다리' 뒤편의 대형 행사장에서는 브레이크 댄서들의 흥미진진한 묘기를 감상할 수 있다.

오후 19시에는 로가트카 강변에서 이완 라드코브의 색스폰 공연과 그의 밴드 그룹 '라드코브 이완 프로젝트'의 공연이 시작된다.

9월 13일(토)에 문화 및 휴식 시공원과 로가트카 강변에서 주요 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이날 하루 내내 각 행사장들에서 방문객들을 위해 전시 행사, 예술단의 정기 공연, 누구나 직접 꽃으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짜르-부케트(왕-부케트)' 전통 축제, 겨울철 새들을 위한 새 동지를 만들어볼 수 있는 '장인들의 도시'행사가 열린다.

또한 행사를 찾은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오락과 게임, 스포츠, 댄스, 그림, 미식 체험의 행사들이 마련된다.

시공원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가장 빛나는 행사 중 하나로 11시 30분부터 '브라보' 학생 관악오케스트라가 행진하며, 최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스

파스카야 바슈냐'축제에서 성공적으로 공연했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서 전통 축제 플래시몹도 열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예술학교와 음악학교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사랑하는 도시에 바친다'라는 공연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저녁 프로그램은 음악 공연으로서 축제다운 '축제 공연'이 열리며, 로가트카 강변에서는 18시에는 티그란 아흐나자라니가 지휘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19시에는 록 그룹 '페레크로스톡'이 이어서 공연을 펼친다. '코스모스' 경기장에서는 저녁 18시에 80년대 - 90년대 댄스 음악을 주제로 '나 월네(파동으로) 143. 에프엠' 라리사 돌리나 아카데미의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공연이 열린다. 20시에는 웨르흐네에 호숫가에서 사할린에서 예술의 길을 시작한 유명 음악예술단들이 공연을 펼치며, '퀸테트 체트료흐(발랄라이카 - 블라디미르 코브야예브, 유즈노사할린스크)' 샤프페테르부르크 기악 앙상블의 연주와 '위데오이그리(가수 울리야나 카를로와, 유즈노사할린스크)' 모스크바 듀엣 공연, 이완 라드코브의 색스폰 연주, 파샤 조린의 디제이(DJ) 공연이 시민들을 기다린다.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도시 경제단체의 지원으로 마련되는 대규모 조형 쇼도 펼쳐진다.

전통 도시의 날에 <오스트로브-리바>축제가 개최되어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기념박물관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공연과 대화 및 박람회도 열린다.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곽병규

관리번호	962980		
성명	곽병규	한자	郭炳奎
이명	郭丙奎 郭炳奎	성별	남
생년월일	1893-02-18	사망년월일	1965-10-26
본적	황해도 봉산 문촌 이덕		

공훈록

곽병규는 1919년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에서 의사로 활동했으며, 1920년 4월 중국 상해에서 대한인적십자회(大韓人赤十字會)가 설립한 간호원 양성학교의 교수로 활동하였다.

1920년 12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기독교 청년회 총회에서 회장에 뽑혀 국내의 중앙청년회와 연합한 후 재미 만

국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기독교 청년회와도 연합을 꾀하였다.

1921년 2월 대한인적십자회 대표원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및 시베리아에서 회원과 자금 모집 책임을 맡았다. 동년 3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잔치를 베풀고 비밀리에 3.1만세운동을 기념하였다.

1922년 2월 시베리아조선인교육회 부회장에 뽑혔으며, 이후 국내로 들어와 1928년 1월 신간회 사리원지회 설립 당시 부지회장이 되었다. 동년 10월 18일 동아일보 기자 이근호(李根浩)와 중의일보 기자 이문재(李門在), 사리원청년동맹 회원 등이 황해도 사리원 경찰서 고등계 형사에게 체포될 때, 경산병원장(鏡山醫院長)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그 이유는 청년동맹과 관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出版警察月報 第2號(1928. 10. 20)

- 鮮人の行動에 關한 件(在浦潮斯德總領事：1921. 7. 13)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시베리아(12)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33집 365면
- 東亞日報(1922. 2. 8, 1928. 10. 20)
- 鮮人の行動에 關한 件(在浦潮斯德總領事：1921. 3. 9)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시베리아(11)
- 鮮人の行動에 關한 件(在浦潮斯德總領事：1921. 8. 11)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시베리아(12)
- 獨立新聞(1920. 3. 13, 4. 17)
- 新韓民報(1920. 3. 30, 4. 16)
- 中外日報(1928. 1. 9)
- 在東京 鮮人留學生 金恒福의 通信에 關한 件(1919. 2. 28)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
- 鮮人の行動에 關한 件(在浦潮斯德總領事：1920. 12. 15)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시베리아(11)
- 鮮人の行動에 關한 件(在浦潮斯德總領事：1921. 2. 20)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시베리아(11)
- 不逞鮮人 學生의 書面에 關한 件(在浦潮斯德總領事：1919. 2. 21)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시베리아(7)

묘소: 경기도 광주시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 счастливых моментах и увлечениях, дарящих красоту

9 сентября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очере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Героем встречи стал Евгений Ким, пробующий себя в различных видах творчества: фото и видеосъемка, изготовление аксессуаров из кожи и фетровых шляп (ручная работа), написание стихов и музыки, создание авторских открыток с цитатами только для тебя, игра на акустической гитаре, создание сайтов. При всем при этом он усердный офисный работник, занимается творчеством не в ущерб работе.



Евгений им тему «Искусство выбирать лучшее: счастье, творчество и осознанную жизнь» вступил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пришедшие на встречу. Участники вспоминали о моментах счастья в их жизни, которые заставили призадуматься и почему-то вспомнить о детстве, ведь именно оттуда, наверное, самые яркие и тепл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Одно из последних увлечений Евгения – создание фетровых шляп – настолько заинтересовало участников, что пришлось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на экране рабочее место и процесс создания шляпы. Гости также были восхищены изделиями из кожи, аккуратной работой и стильностью вещей.

В подарок от Евгения и его молодой супруги Дарины прозвучала авторская песня (слова и музыка Евгения)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встречи Евгений перевел ее на русский, воспроизведя текст на экране. На мой взгляд светлая песня «Мечтай» передает философию жизни Евгения.

А ещ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в подарок авторские открытки от Евгения и частичку тепла его сердца.

Вечер получился по-настоящему искренним, теплым, душевным. Хотелось продолжать общаться.

Виктория Бя

Гранд-мастер Нам Ин До дал урок сахалинским спортсмен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л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знакового события в мире единоборств — регион посетил всемирно признанный гранд-мастер, президент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Тансудо, господин Нам Ин До. Его приезд можно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назвать культурным и спортивным мостом, укрепляющим связи между традициями восточны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и сахалински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В рамках своего пребывания Нам Ин До провел эксклюзивный мастер-класс и аттестацию для мест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Это значим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воскресенье 7 сентября в стена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центр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Господин Нам лично провел совместную тренировку, в ходе которой поделился с подрастающим поколением уникальными авторскими методиками подготовки и секретами эффективного применения боевых навыков. Особый акцент мастер сделал на философск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единоборств, разъясняя юным ученикам первостепенную важность всестороннего развития и комплексного подхода к тренировкам.

Центральным элементом визита стала аттест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единоборцев. Спортсмен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астерства в зрелищных показательных выступлениях и в поединках, буквально вложив в каждое движение душу и годы упорного труда. По итогам этих испытаний гранд-мастер лично вручил спортсменам сертифика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ца и чёрные пояса.

Также,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мест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чей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и популяризацию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был отмечен на так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Заверш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ытием, которое определяет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ских единоборств на годы вперед, — подписанием ряда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ей Тансудо и ведущими спортив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области. Свои подписи под документами поста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Хапкидо,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ГТФ,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МФ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икбоксинга и Муатай, а также Ассоциации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Отдельное соглашение было заключено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Чон Ен Гоном, активно содействующим развит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на острове.

Достигнуты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открывают новые горизонты: они закладывают прочный фундамент для развития спортивных обм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и целого ряда други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Это не просто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а живой мост к укреплению долгосрочного и плодотво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портивными сообществам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шес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Дяде по материнской линии

Как в прошлом, так и сейчас время проходит безжалостно. Говорят, что через 10 лет меняются горы и реки, но прошли долгие 30 лет, так что сейчас все изменилось.

Дядя, все братья уже в почтенном возрасте, и надеюсь, у вашей супруги всё хорошо со здоровьем. Как поживают наши родственники? Вы поддерживаете связь друг с другом? Племянник, живущий на Сахалине, всегда думает о родине. У него есть дети, и у старшего сына уже есть замечательный зять. Теперь ему нужно присмотреться к кандидатуре будущей невестки.

Мы думали, что избавились от всех забот, и что у нас нет никаких проблем. Однако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случилось несчастье — мужа парализовало.

Мы стараемся лечить его, покупаем все возможные лучшие средства, но пока не видим ожидаемого эффекта. У членов семьи нет другого выхода, кроме как смиряться с этой ситуацией.

В жизни человека 60 лет (1) — это значимая веха, которая знаменует определённый этап. В жизни моего супруга скоро наступит этот важный рубеж.

Пока живы родители, они стремятся обеспечить детям счастливое будущее на родине. Однако, когда здоровье даёт сбой, а душа требует перемен, со стороны слушать это невыносимо тяжело.

Супруг, лёжа в постели, словно заклинание, говорит о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и я тоже считаю, что если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и утолить жажду, то это может стать ключом к его выздоровлению.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усердный труд помогает преодолевать жизн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Однако, если ты родился в своей стране и живёшь рядом с близкими, то нет большего желания, чем быть рядом с ними.

С далёкого Сахалина я желаю, чтобы наши братья и родственники поскорее встретились. Желаю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дяде и двоюродному брату, и на этом я заканчиваю своё письмо.

**25 ноября 1972 год
Южный Сахалин
Чон Сун Бок (정순복)**

Комментарии:

(1) Хвангап (환갑) –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Юлия Дин, к.и.н.

Сахалинские борцы завоевали три золота на Играх в Кыргызстане

С 5 по 12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на побережье озера Иссык-Куль в Кыргызстане проходили XXIV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стран СНГ и ШОС. Крупнейший спортивный форум в Средней Азии собрал более 30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Таджикистан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Азербайджана, Беларуси, Китая, Индии и Монголии. В программу Игр вошли как классические виды спорта (плавание, легкая атлетика, волейбол), так и национальные единоборства, включая борьбу «Ссирым».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сирым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показала блестящий результат, завоевав три золотые, одну серебряную и одну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и призерами Игр стали Кирилл Чун (2008 г.р., две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Алиса Чун (2014 г.р., золото), Артём Чун (2014 г.р., серебро) и Ольга Юн (бронза).

Успешно выступив на XXIV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ык-Кульских играх,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отправилась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чемпионат по ссирым в китайский город Яньцзи,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с 13 по 18 сентября.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Ссирым)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хеньян: Визит лидера КНДР в Китай -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Визит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в Китай стал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которое подчеркнуло прочную и нерушимую дружбу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5 сентябр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ин Цзиньпин «провели откровенны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вопросам укрепл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 организации большего количества визитов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Они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и друг друга о сво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озициях в област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укрепл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защиты общих интересов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опросах,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Ким Чен Ын заверил Си Цзиньпина в то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ит поддерживать Китай в его усилиях по защите суверенитет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и интересов, - сообщает ЦТАК.

Президент РК распорядился улучшить условия труда иностранцев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оручил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асследовать случаи нарушений трудов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ключая задержки выплаты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ыступая 5 сентября на совещании с сотрудниками сво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К, не должны испытывать неудобств. К ним следует относить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ультурными стандартами, правилам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татусом страны.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распорядился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докладывать ему о нарушениях. Он поручил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азработать конкрет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РК, США и Япония проведут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РК, США и Япония проведут совместные многопрофильные учения Freedom Edge. Как сообщили 5 сентября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ОКНШ)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учения пройдут с 15 по 19 сентябр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дах к юго-востоку от острова Чечжудо. Цель учений - дальнейшее углуб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военным угрозам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ри страны укрепят свои операти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море, воздухе и киберпространстве, повысят оперативную совместимость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прочного и стаби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анные учен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и они проводятся с соблюдением нор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ОКНШ. Это будет третий раунд Freedom Edge. Первые два раунда состоялись в июне и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Фильм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Оскар»

Новый фильм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No Other Choice)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премию Американской киноакадемии 2026 года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иль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3 сент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совете по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Категория «Лучш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ильм» открыта для полн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произведённых за пределами США. В этом году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овал фильм режиссёра Ким Сон Су «Весна в Сеуле».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 триллер с элементами чёрной комедии. Он повествует о талантливом химике, который теряет работу, и, чтобы прокормить семью, становится серийным убийцей. Фильм участвует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82-го Венециа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й завершился 6 сентября.

В РК учатся более 270 тысяч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июля этого года,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узах обучались 272.573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а, что на 17,5%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 сент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82.396 иностранцев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116 - другие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190.061 - получаю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знан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разных уровней. 38,9%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или 106.152 человека, приехали из Вьетнама. Далее следуют граждане Китая, Монголии, Узбекистана и Непала.

Песня Dynamite группы BTS набрала более 2 млрд просмотров

Песня Dynamite, которую группа BTS выпустила 21 августа 2020 года, набрала более 2 млрд просмотров. Она заняла 34-е место в списке самых прослушиваемых песен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по версии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Apple Music. Как сообщило продюсерское агентство Big Hit Music, двухмиллиардная отметка преодолена в 9:16 утра 4 сентября. Dynamite - первая англоязычная песня BTS в стиле диско-поп и яркий клип. Она в течение трёх недель возглавляла музыкальный чарт Billboard Hot 100, выиграла в номинациях «Лучшая песня» на MTV Europe Music Awards 2020 и «Самая продаваемая песня» на Billboard Music Awards 2021. **RKI**

Сахалин как пространство живой памяти: взгляд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з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ой группы

В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группа, в составе профессора Светланы Пайчадзе (Хоккай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факультет медиа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Япония),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того же факультета Дон Цзыана, а также доцента И Джун Ёна (кафедра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ъян, Южная Корея), совершила научную поездку по Сахалину. С 2 по 8 сентября они посети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рсаков, Долинск, Макаров и Углегорск с целью изучения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региона.

Поездка стала продолжением предыдущей экспедиции, проведённой годом ранее. Тогда собранные материалы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широкой публике в формате фотовыставок в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В этот раз результатом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стала экспозиция в Макаровск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которая продлится до октября. Выставка позволяет по-новому взглянуть на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остранства Сахалина, актуализируя их значение как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и современной культурной среды.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исследования стала работа с устной историей. Участники группы вели беседы с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собирая их воспоминания, впечатления и личные нарративы, связанные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объектами. Как отметили сам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это стало важным шагом к переосмыслению сахалинской истории - не как «исчезающего прошлого», а как «живой памяти», продолжающей жить в настоящем.

Исследователь И Джун Ён, занимающийся историей корейской миграции на Сахал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истор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и сооружения здесь не отделены от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а естественно вписаны в неё, формируя образ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коллективную память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Дон Цзыа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писал свои лич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в небольшом эссе, которое ярко отражает глубину восприятия Сахалина как пограничного 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от выдержка из его размышлений:

«Я прибыл на этот ост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не как исследователь Сахалина и не как турист, а скорее, занимая промежуточную позицию между ними.

В течение семи дней моего пребы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мы с коллегами проехали по маршру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Макаров - Углегорск - Корсаков, совмещая



дорогу с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ой. Мне, человеку, многие годы изучающему пограничные районы Юго-Западного Китая - в частности, провинцию Юньнань, понятие «пограничья» давно близко и понятно.

...Пограничье - это не изолированная и оторванная от мира территория. Напротив, э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где культуры встречаются,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сосуществуют. Сахалин - именно такое место. Здесь, наряду с российскими институтами и культурными кодами, сохранились следы присутствия других культур.

В сентябре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инается грибной сезон. В это же время в моей родной провинции Юньнань в горах тоже обильно растут грибы. Где бы ни шел дождь в горах - везде можно найти грибы. У грибов нет границ. И я сам хочу стать как гриб - человеком без границ».

Профессор Светлана Пайчадз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акцентировала внимание на важн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взгляда на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а как части более широких трансграничных процессов - между Россией, Японией, Китаем и Кореей.

Команда планирует опубликовать результаты своей работы в научных статьях и фотоальбомах, чтобы сделать это знание доступным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 как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так и тем,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историей региона и его уникальным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Наш корр.

"Зона национальных символов": Госструктуры Кореи собираются переехать в Сечжон - второй по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страны Президент и парламент Кореи переедут в новы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стра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всерьез готовятся к переносу ключевых госструктур из Сеула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город Сечжон (примерно в 100 км на юг от нынешней столицы).

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проек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на 2026 год заложены почти 2,9 трлн вон (около 2,1 млрд долларов)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азвитие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толицы. Речь идет не только о расширен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о и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й резиденции президента и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здания.

На разработку проекта и приобретение участка под президентскую резиденцию в Сечжоне выделено 240 млрд вон, а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ечжонского зд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 956 млрд вон. Оба объекта станут частью будущей "зоны национальных символов" - масштаб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районе Сечжон-дон, площадь которого превысит 2 млн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Знач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предусмотрены и на улуч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212 млрд вон направя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автомагистралей, включая дорогу от станции Пугандо до северной развязки Тэджона. Еще 198 млрд вон пойду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лиции Сечжона, а также 26 млрд вон -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для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угрозы безопасности.

Параллельно расширяется культурная и социаль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которой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оздание большого музей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научно-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На это будет выделено около 1 трлн вон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720 млн долларов).

Как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по строитель-

ству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толицы Пак Сан Ок, нынешний бюджет подчеркивает серьезность намер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вершить формирование полноценной столицы в Сечжоне.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парламент утвердит выделенные средства без задержек.

На фоне этих инициатив мэр Сечжона Чхве Мин Хо объявил о старт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разработку мастер-плана "зоны национальных символов". По его словам, именно мэрия Сечжон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лет добивалась ускор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ых резиденций - и теперь получила подтверждение готовности центральных властей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точное расположение президентской резиденции, внешний облик и планировка главных зданий. Город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ыразила готовность оказывать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проекту и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постройки должны стать архитектурным символом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как глобального игрока.

Кроме того, мэр Чхве призвал власти в Сеуле сделать следующий шаг - закрепить статус Сечжона ка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толицы в конституции страны, а также завершить перенос оставшихся министерств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гентств. Вопрос о переезд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рпораций в Сечжон также вновь оказался в повестке дня.

По оценкам аналитиков, эти шаги могут стать крупнейшим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ми реформами 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и окончательно закрепить за Сечжоном статус втор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стран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ахалину отведена ключевая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отрасли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в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беспилотных аппаратов всех сред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состоялось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Люди и машины будущего – мировая повестка развития и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трасли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й, способы применения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Ключевой темой дискуссии стала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роль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как уникального полигона для опережающей разработки и внедр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ехнологий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де создан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дронпорт «Пушистый»,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качестве отправной точки для апробации и разработки новых сценариев применения дронов в сочетании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пыт и практ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удут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на другие субъекты ДФО. Отдельно был отмечен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достиж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цели по вхождению России к 2030 году в число глобальных лидеров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и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всех сред.

На форуме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мы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70 сценарие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области экологи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служивания линейных объектов и перевозки грузов. Уже сегодня с помощью дронов мы сократили площадь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в 40 раз, предотвращаем наводнения и доставляем грузы в труднодоступные места. Сахалин и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 это пилотная площадка России для отработки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в народном хозяйстве. Принципиально важно решить вопрос их эконом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 без этого движение вперед невозможно. Уже создана модель управления полетами, согласованная с Росавиацией, открываются учебные центры и техникумы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операторов. Наша цель — масштабировать успешный опыт Сахалина на вес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подчеркнул в ходе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практической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спилотные ави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достиж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страны и выполнения целе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до 2030 года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35 года.

Беспилотные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ся. Уже сейчас они применяются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 работают беспилотные паромы, запущена беспилотная «Ласточка», городской транспорт, перевезено более 2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грузов. Лидером является отрасль гражданских беспилотных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Минтранса России — выстроить четк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полноценный правовой фундамент для всего жизненного цикла беспилотных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создан. Росси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мировых лидеров в области регулирования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опережая по ряду ключевых аспектов такие страны, как США и Китай. В перспективе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выстроить полноценные логистические цепочки при помощи тяжелых БПЛА. Мы открыты и готовы 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со всем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сторонами,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Потешкин.

Кроме того, обсуждались конкретные 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аботающих в сегментах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БАС), надводных (БНТС), подводных (БЭС) и наземных (БНА) систем.

В рамках поддержк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реализует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Мы предлагаем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весь спектр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х режимо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режимы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же запущен Инновационны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й цент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 на его базе будем развивать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Боль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с точки зрения укрепления рынка экспорта, а также обмена научным опытом имею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TOP. Кроме того,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динамичного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продолжим помогать разработчикам в част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сопровождать их проекты. Нужно не просто научиться производить БАС, но и эффективно внедрить их во все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а также — выйти на внешние рынки. Наша цель — совершать прорывы в этой технологии будущего, — подчеркнул статс-секретарь —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нтон Басанский.

Также в ходе дискуссии обсуждалось международ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внедрение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в отрасль, ход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спилотные ави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Участники подчеркнули важность поддержки отрасли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площадок для экспертного диалога и обмена опытом.

Конгрессно-выставоч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тановится ключев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ей, объединя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артнеров, инвесторов и экспертов. Именно на таких площадках рождаются прорывные решения, укрепляется доверие и формируются векторы будущей экономики, основанные 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 суверенитете и устойчивом развитии. Созданная на Сахалине конгрессная площадка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такому диалогу все условия. Подчеркну, внедрение инноваций, поддержка передовых отраслей, развитие компетенций и реш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дач обеспечивают прогресс —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уделять этим тема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 подчеркну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Фонда Росконгресс, директор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Игорь Павлов.

В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Григорий Карас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Андрей Кутепов,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формации и печа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и робототехн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и Алексей Сердюк,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ГЛОНАСС» Алексей Райкевич,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труктор —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ПАО «Объединенная авиастроительная корпорация» Сергей Коротков,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ГТЛК Михаил Парнев. В видеоформате к дискуссии присоединил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БПЛА Ян Цзиньца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беспилотных аппаратов всех сред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проходил с 6 по 8 сентября. В не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19 стран мира,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представляют 19 компаний. Мероприятие является выездной площадкой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Оператор —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Официальные партнеры форума — ПАО «Банк ПСБ», ООО СТС (Сахалин Турбина Сервис).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формирует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молодежь в развитии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В регионе создается комплексная система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для этой перспективной отрасли, начиная со школьной скамьи и заканчивая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ветераны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эксперты отрасл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посвященной привлечению активной молодежи к управлению беспилотными авиационными системами (БАС).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на площадке технопарка «Сахалинэксп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одератором встречи выступ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условиях стремитель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потребность в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ах для отрасли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БАС)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острой. К 2030 году около 1 млн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будет подготовлено в России,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ю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Валерия Фалькова во время совещ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На Сахалине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над решением этой задачи. Для эт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выстраивает комплексную систему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начиная с самых юных лет.

Мы видим, что будущее за теми, кто готов учиться и применя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на практике. Наша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олодые люди с ранних лет могли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миру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азвивать свои навыки и в дальнейшем ста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носящими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нашей страны. В течение 3 ле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реализуются учебные курсы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со второго по одиннадцатый классы по сборке,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ю и пилотированию БПЛА, которые включены в предметы «информатика» и «технология». Этот подход позволяет не только привить интерес к теме с раннего возраста, но и заложить прочную основу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обучения,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России сформировалось целое движение, объединяющее десятки тысяч энтузиастов — от школьников до студентов технических вузов. Т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как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е БАС» и захватывающие гонки дронов, уже получили официальное признание как виды спорта. Участники оттачивают свое алгоритм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учатся

слаженной командной работе, получают бесценный опыт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и отладки реальных технических систем.

Молодеж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беспилотным авиационным системам — это не просто игра, это ре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молодых людей увидеть свое будущее в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отрасли, получить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и ста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уже сегодня, — заяв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ектов ГК «Геоскан» Михаил Луцкий.

Талантливые школьники могу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умения на областном фестивале «На взлет!», где после успешной сдачи демонстрационного экзамена им вручается сертификат «Оператор БПЛА». Эти данные вносятся в специальный реестр.

В этом году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впервые открыта специальность «Эксплуатация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Уже подано 53 заявления при плановом наборе 25 мест. Выпускники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будут трудоустроены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занимающиеся разработкой БПЛА для нужд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было открыто студенческое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ртура Берендяева.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с Республикой Беларусь обеспечена совместная подготовка высших инженерных кадров по конструированию БПЛА. С 2025/2026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СаХГУ появилась новая специальность — «Педагог организатор ОБЖ с применением БПЛА». Приоритет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на да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отдается ветеранам СВО, обладающим практическим опытом.

Напомним,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является инициатором компетенции «Ремонт БПЛА» в рамках чемпионатного движ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Результаты участи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говорят сами за себя: 1 место на чемпионате «Абилимпикс»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г. Казань), а также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на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этапах чемпионатного движ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2024 и 2025 годах.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фере БПЛА на базе аэродрома «Пушистый» создан учебный авиационный центр.

Участники сессии сошлись во мнении, что инвестиции в образование и подготовку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БАС являются залого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ы.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спилотные ави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который был запущен в России 1 января 2024 года на период до 2030–2035 годов.

Корабл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придут в порт Корсаков в рамках акции «Сила в правде-2025»

Прибытие кораблей в порт Корсакова ознаменуется 11 артиллерийскими залпами 13 августа в 9:00. В состав отряда вошли корвет «Совершенный», большой противолодочный корабль «Адмирал Пантелеев», а также большой десантный корабль «Ослябя», современный тральщик «Анатолий Шлемов» и спасательный буксир «Алатау».

Акция приурочена к 80-летию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одготовлена масштабная 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В воскресенье, 14 сентября, на площади им. В.И. Ленина Корсакова состоится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ансамбля и оркестр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Для гостей прозвучат известные песни военных лет. Состоится прием островитян в ряды «Юнармейцев».

Здесь же, на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Корсакова,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демонстрация современных образцов техники и вооружения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 БТР-82, бронемашины «Тигр-М», ЗСА-Т «Линза», «Торнадо-У», гаубица «Д-30». Развернется и экспозици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узея ТОФ с показом артефактов, рассказывающих о подвигах тихоокеанцев. Запланированы соревнования «Гонки на Ялах», товарищеские матчи по мини-футболу и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Отряд кораблей ТОФ 1 августа вышел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и прошел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морских миль, провед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Магадане,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Анадыре, пгт Провидения и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Сейчас акция «Сила в правде-2025» проходит на Итурупе, а затем, перед заходом в порт Корсаков, корабли направятся на Кунашир.

Акция «Сила в правде — 2025» является морским этап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Ф «Единство в памяти. Сила в подвиге!».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 защита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вды 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укреп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Она также призвана рассказать о героизме моряков-тихоокеанцев, участвующих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선수 빅토리아 엄, 중국 총영사관배 바둑대회에서 동메달 획득

사할린의 어린 바둑선수 엄 빅토리아 9월 5일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제 3회 중국 총영사관배 국제 전략바둑대회 여자유소년 9세이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수상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이번 바둑대회에 모스크바를 비롯해 카잔, 노위시비르스크, 러시아의 큰 도시들과 극동지역 전 도시들에서 바둑계의 어린 고수들이 참가했다. 경기 결과 엄 빅토리아의 창의적인 접근방식은 관객들과 주최 측에

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승한 대국 중 하나에서 빅토리아는 바둑돌로 '물고기'모양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이번 경기의 공식 상징이기도 했다.

사할린주 스포츠부에 따르면 빅토리아 엄은 유즈노사할린스크 김나지아 1호학교 보충교육 학급에서 예카테리나 쿠프리노와 교사의 지도로 훈련을 받았다고 전해지며, 사할린 '로드지-도'바둑 동아리의 훈련 생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아를 위한 태권도 품새 교육일정, 사할린에 개설

9월 6(토) 사할린 '토나르도' 클럽에서 지적발달장애아동을 위한 태권도- 품새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이제 발달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다양한 수준의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개강식에 시행정부 체육문화 및 스포츠청의 알렉산드르 안킨 부국장과 스포츠훈련센터의 맞춤형 체육부 울가 말리호와 담당자가 참석했다.

연방 사할린 지부 지부장인 파벨 리는 "앞으로 이 아동들은 경기 출전과 빛나는 우승으로 등급과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년 여름에 사할린주에는 태권도 품새에 21개 종목을 통합한 전 러시아 지적발달장애인스포츠연맹 지부가 설립되었고, 현재 어린 선수들은 스포츠 등급과 칭호를 얻으며, 다양한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및 정책 제언 청취

국내 동포들의 체류자격 제도개선 등 국내 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이 열렸다.

9월 5일 금요일 14:00~17:00, 서울시 대립도서관에서 사단법인 다가치포럼(대표 김정룡)과 전국동포총연합회(회장 김호립)가 공동 주최한 '2025 제3차 다(多)가치포럼'에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최준호 법무부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준화 흥익대 상경학부 교수, 광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등 정부부처,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중국, CIS(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舊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국가 연합) 동포들의 H-2 및 F-4 비자 통합과 국내 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 및 토론을 실시했다

격 변경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고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을 제안하며, 특히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청 내 전담 부서 설치 필요도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김선녀 소망여행사 대표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 등 참가자들은 H-2와 F-4 통합 문제 및 국내 동포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실제 통계에 기반한 국내 동포 인식 개선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기반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현실에 맞는 동포 취업 관리 △동포 대상 고용·근로 보호 강화 등 필요성을 피력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국내 동포들을 넓게 아우르는 포용(包容)사회

< ※ 참고 :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교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대상	18세 이상 중국 및 CIS국적(6개국)*의 동포 중 장기체류/취업하려는 자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정부 수립 이전 이주자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인 외국국적 동포 *「재외동포법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체류기간	3년(최대 1년 10개월 연장 가능)	3년(계속 연장 가능)
활동범위	단순 노무 허용	단순 노무 취업 제한
체류현황(25.7월)	88,049 명	555,437 명(중국CIS 471,802 명)

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동포 체류자격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H-2와 F-4 비자 통합이 궁극적으로 국내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재외동포청 등 유관부처들이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동포청은 이원화된 체류자격 문제 해결과 함께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2025 제4차 다(多)가치포럼'은 4분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김경협 동포청장 "동포사회 연결 넘어 연대 강화하겠다"

10일 취임...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맞춤형 지원 확대 등" 밝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0일 "재외동포 사회와의 연결을 넘어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겠다"며 "우리 동포들의 민간외교 활동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국과 협업할 수 있는 연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 차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위상에 걸맞게 재외

동포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가 하면 다문화 가정 자녀와 입양동포, 역사적 특수 동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해외동포 청년의 국내 유치와 정착지원을 통해 세계 곳곳의 동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외통위·정보위·남북경협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



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9일 김 청장의 임명 배경과 관련, "3선 국회의원, 국회 외통위, 정보위, 남북경협특위 등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치적 경험을 보유한 외교 안보 전문가로, 특히 국회의원 재직 중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재외동포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대 재외동포청장 김경협입니다. 저는 과거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8년 후 지금, 이제 직접 재외동포청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 임명되어 무한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신생 기관인 재외동포청을 지금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헌신하신 전임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중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 기술 혁신 등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고, 안으로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의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불확실성 하에 저는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포사회와의 연결을 넘어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늘날 한류의 세계화, 세계 경제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은 단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국에서 외교관 못지않은 역할을 해 오신 동포 여러분의 피땀 어린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민간외교 활동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과학기술, 문화예술, 경제, 교육 등 각 분야 동포 전문가들이 모국과 협업할 수 있는 연대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은 단순히 혈연이나 국적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어와 역사, 문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어 교육은 차세대 동포들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내국민과 재외동포와의 민족적 공감대를 높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여 차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위상에 걸맞게 재외동포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많은 동포들이 정치적·법적 불안정과 차별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의 두터운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난 동포 등 어려움에 처한 국내의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입양 동포, 역사적 특수 동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청년 이탈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로 지속 유입되는 외국국적동포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모국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 정착 가능성이 큼니다. 이제는 국내 체류 동포를 단순 귀한 이주민이 아닌 함께 미래를 설계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한국어 교육, 주거 및 취업 지원, 지역 공동체 통합 프로그램 등을 체계화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 동포청년의 국내 유치와 정착 지원을 통해 세계 곳곳의 동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청에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가 각기 다른 언어,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한민족이라는 뿌리로 연결되어 저력을 발휘하듯, 우리 직원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을 가진 것은 보다 깊이 있는 동포 정책을 만들고 더 넓은 시야로 동포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모국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연대에서 출발합니다. 경쟁만 있고 협력이 없는 조직이나 사회는 소멸하거나 결국은 멸망해 갑니다. 저는 축구에서도 골을 넣는 선수보다 어시스트를 잘하는 선수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부서와 직책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라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제3대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현재 이 특별 메뉴를 맛볼 수 있는 9개 요식업체는 '라브로', '체호브-파브', '기오르기', '카파니짜 플레스카위짜', '레토', '펠멘-바르', 커피체인점 '로엘 커피', 카페 '에코 밀', 빵집 '피로기 오토 마리니' 등이 있다.

이 메뉴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레스토랑 '체호브 파브'의 셰프-조리사인 알레리 코발료브가 제안한 가운데 그는 향후 '사할린 주민 카드' 소지의 젊은 가족을 대상으로 할인 및 보너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발료브 셰프는 이 기획을 <행복한 어머니의 해> 이후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새로운 음식점들과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및 기타 지원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단일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vять заведений на Сахалине теперь готовят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и кормящих мам

Devять заведений предлагают блюда без аллергенов с нужными витаминами и минералами, а для семей с картой сахалинца планируются бонусы и скидки.

В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ют вести проект «Счастлирое материнство». Местные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теперь предлагают меню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и кормящих женщин. Блюда не содержат аллергенов и содержат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витамины и минералы.

Сейчас попробовать меню для мам можно в девяти заведениях: «Рябро», «Чехов-паб», «Гиорги», «Кафаница Плескавица», «Летто», «Пельмень-бар», сети кофеен Loell coffee, кафе Eco meal и пекарня «Пирог от Марины».

Идею создать такое меню предложил шеф-повар ресторана «Чехов паб» Валерий Ковалев. Он рассказал, что следующим шагом станет система скидок и бонусов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с картой сахалинца. Ко-

вале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оект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и после Года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и сейчас проводят переговоры с новыми заведениями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программы.

Проект инициирован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Его цель — сделать жизнь будущих мам комфортнее, повыс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и каче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ся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оекте и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доступна на едином портале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민속 공연, 성황리에 마쳐

9월 4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민속 연극 <그리고 새벽에 노래하는 태양이 솟아오른다...>(12세 이상 관람가) 첫 공연이 열렸다. 사할린주 정부의 대규모 첫 장려금 지원 기획이 러시아 연방 문화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이 민속 공연의 목표는 러시아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대중화하는 데 있다. 이 기획의 총지휘자인 류보브 포즈드냐코와는 "이 민속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난해 조성되었다.

우리는 러시아 여러 지역의 전통과 각 지역들의 특색을 보여주기 위해 각 지역의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편곡을 했다. 각 지역들의 전통음악은 독특하고 독창적이었다. 우리 모두 사할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스타일을 포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공연은 매우 흥미롭게 진행됐다. 첫 관객들이 이를 감상할 수 있었고, 우리는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공연에는 민속문화센터 '라두가'의 무용단 '엑조티카'와 민속악단 '라도스테야'가 참여했다. 민속문화센터의 직원들도 연극에 참여했다.

관객들은 "이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가득한 진짜 민속 축제이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공연 시나리오는 톨라, 스몰렌스크, 벨고로드, 워로네즈, 쿠르스크 지역의 민화를 기반으로 했고, 연주된 악기들은 발랄라이카, 로쉬카, 팔레이카, 쿠기클릭, 크랙킹 등이 사용되었다.

공연 의상은 역사적 고증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작품에 진정성과 분위기를 더했다. 9월에는 순회 공연의 일환으로 사할린과 쿠릴 열도 주민들에게 이 민속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Премьера этно-спектакля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аншлагом

4 сен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этно-спектакля "И на рассвете певчие солнце восходит..." (12+). Постановка прошл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и стала первым грантовым проектом такого масштаб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е цель — сохранить и популяризовать русскую народную культуру.

— Идея создать этно-проект появилас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решили показать традиции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Нами были созданы музыкальные аранжировки на основе традиционных наигрышей этих регионов, чтобы показать специфику каждого из них. Каждый регион необычен, оригинален. Сложность была в том, что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о было поймать стиль каждого региона, так как мы все живем на Сахалине. Спектакль вышел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Первые зрители уже смогли оценить его, и мы получил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ложительных отзывов,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Любовь Позднякова.

В спектакле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Центра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Радуга": ансамбль танца "Экзотика" и фольклорный ансамбль "Радостея". В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х сценах участвовали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и учреждения.

"Это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фольклора, наполненный теплом и искренностью", — отметили зрители. В основу сценария лег фольклор из Тульской, Смоленской, Белгородской, Воронежской 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ей. Музык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включало народ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изготовленные вручную: балалайки, ложки, жалейки, кугиклы, трещотки. Костюмы для выступлений были пошиты по историческим образцам, что сделало постановку аутентичной и атмосферной. В сентябре этно-спектакль покажут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рамках гастрольного тур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